

부동산·주식·예금금리 ↓ 소비자·생활물가·대출금리 ↑

자산 줄고 빚 늘고 서민들 '재산 붕괴'

최근 물가급등에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까지 하락세가 맞물리면서 광주·전남 서민 가계에 '자산 붕괴'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대출금리 등 금리까지 연일 급등세를 보이면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투자를 한 서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의 소비자물가는 각각 6.0%, 6.1% 치솟았다. 또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도 1년새 각각 7.8%, 7.9%나 뛰는 등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은 되레 크게 떨어진 셈이다.

광주·전남은 또 지방 부동산침체의 여파로 토지의 자산가치도 날로 떨어지고 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광주·전남의 지가상승률은 각각 0.45%, 0.92%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2.23%)은 물론,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에 크게 못미친다.

이같은 상황은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 흐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5일 코스피지수는 연중 최저치인 1,509.33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전월보다 3.16%(49.29포인트)

트) 급락한 것으로, 연중 최고치인 5월16일(1,888.88)에 비해선 무려 21.1%(379.55포인트)나 떨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의 금융자산 중 주식과 수익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따라서 광주·전남 등 주식투자자들은 올 들어서만 총 금융자산 가운데 5% 가량을 날린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전남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도 서민 가계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출금리가 연일 치솟으면서 가계부채를 더욱

확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4월말 현재 광주·전남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조7천274억원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6.9%(6천942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조3천914억원으로 1년새 7.4%(3천703억원)나 늘어나 지역민들의 가계부채 증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금리를 이달 들어 연 9.0%까지 올린 데 이어 일반신용대출 금리 등도 줄줄이 올리고 있다.

반면 은행들이 지난 3월부터 예금금리를 일제히 낮추는 따라 실버세대 등 이자소득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1년 만기 예·적금 금리는 5~6% 수준으로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자소득세(15.4%)를 감안하면 은행에 돈을 맡길수록 손해가 커지는 셈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5일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창립 9주년 기념식에서 김향덕 회장과 각급 기관 임원·단체장, 이주여성 등이 축하역을 자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성 경제인, 지역 경제 발전 주역으로

여경협 광주·전남지회 창립 9주년...모범 회원 표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김향덕)는 15일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창립 9주년 기념식과 여성경제인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 박춘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나영주 광주지방조달청장, 김병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 등 정부·기관단체장, 여성단체장,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창립 9주년 기념식에서는 축하공연과 모범 회원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표창을 받은 회원들은 ▲광주시장상=노중현(청산뉴미디어) ▲전남도지사상=추우순(덕인제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상=김현자(여성꽃방)·장소용(아프로) ▲광주지방조달청장상=문순자(한국유제)씨 등.

이러 열린 여성경제인대회에서는 인도출신 바수무(유네스코 광주전남 국제문화교류담당이사)씨가 '이주여성의 경제발전, 한국사회의 다문화 이해에 달려있다'를 주제로 강연했고, 한희자(한희자여행나라 대표)씨가 창업과 경영사례를 발표했다.

광주·전남지회는 여성경제인의 지위와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99년 7월 창립했다. 이종태기자 jilee@

광주 ↓ 아파트 거래 전남 ↑

광주 비수기 영향 매수세 줄어...전남 여수·순천 엑스포 힘입어 활기

지난달 광주는 여름철 비수기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한 반면 전남은 순천 등 일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기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1천4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1천886건)에 비해 22.6%(426건) 감소한 것으로, 계절적인 비수기로 인해 매수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남은 지난달 아파트 거래건수가 1천224건에 달했다. 순천과 여수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전달(939건)보다 30.4%(285건)나 급증했다.

전국의 경우 수도권의 거래 감소와 계절적인 비수기 등이 맞물리면서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4만2천974건으로 전달에 비해 3.1%(1천390건) 줄었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는 새 정부 출

범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와 봄 이사철 수요 등으로 3월에 4만6천629건까지 늘었으나 4월(4만6천159건), 5월(4만4천364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9천643건으로 전달보다 13.3%(3천7건) 줄어드는 등 2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지방은 2만3천331건으로 전달보다 7.5%(1천617건) 늘어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어음부도율 0.56% 전달보다 소폭 하락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어음부도율이 전달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의 어음부도율은 0.56%로, 전달(0.61%)에 비해 0.05%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어음부도율이 0.88%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상승했으며, 전남은 0.16%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의 신규 부도업체 수는 12개로 전달(8개)보다 4개 늘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양제철소 방문객 500만명 넘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국내외 방문객들의 산업체 견학코스인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15일 방문객수 500만명을 돌파했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광양지역이 제철소 입지로 확정된 1981년부

터 일반인과 관련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27년만에 방문객수 500만명을 돌파했다. 이중 외국인 방문객수는 4만3천여명에 달한다.

광양제철소는 수준높은 견학안내

1981년부터 견학 프로그램 외국인도 4만3,000명 달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부건물에 홍보상형실을 마련했고 제철소와 주택단지, 학원단지 등의 실제 모양을 800분의 1로 축소한 모형대, 제철소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는 사진 전시관, DVD영상 시스템 등을

갖췄다. 2001년에는 광양시 중앙동 커뮤니티센터 안에 300여명의 방문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홍보관을 준공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편의시설을 함께 마련했다.

또 직원 부인들로 구성된 20명의 견학 안내사원들이 견학차량에 직접 탑승해 제철소 현황과 철강공정을 상세히 안내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

힐라 코리아(주) 희망 나눔 운동

저개발국 '공정무역' 축구공 통해 캠페인

힐라코리아(주)의 아동복 브랜드인 힐라 키즈(FILA KIDS)가 '공정무역(Fair Trade) 축구공'을 통한 희망 나눔 운동을 벌인다.

15일 힐라 키즈에 따르면 '공정무역' 운동의 일환으로 '힐라 키즈와 함께하는 착한 축구공 이야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 생산자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국내에서도 참여기업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힐라 키즈는 공정무역연합을 통해 파키스탄 시알코트 지방에서 생산되는 축구공 1천개를 특별 주문했다.

이 축구공에는 안전한 등 부산



아이파크 프로축구단 선수들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으며, 오는 20일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열리는 팬사인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증정된다. 또 20일부터 8일간 '공정무역 축구공' 제작 과정이 담긴 사진전이 열린다.

한편 힐라 키즈는 지난 5월 파키스탄 시알코트지방의 축구공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어린이들에게 자사 브랜드의 의류와 책가방 등을 기증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비맥주 '카스'

광주공장서도 생산

이천과 청원공장에서 생산해오던 오비맥주(대표 이호립) 대표브랜드 맥주인 카스(Cass)가 광주공장에서도 생산된다.

오비맥주는 14일 광주공장서 생산기념 출하식을 갖고, 본격적인 호남지역 공략에 나섰다. 기존의 오비블루에 카스까지 생산하게 됨에 따라 오비맥주는 호남지역 경제활성화에 일조하게 됐다.

카스는 국내에서는 처음 후레쉬(Fresh) 공법으로 생산되고 있는 100% 비알처리 맥주이며, 특 소는 청량감이 뛰어나 젊은층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황인정 오비맥주 마케팅 상무는 "광주에서 생산되는 카스가 호남지역민들의 맥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Jooyou Travel (조이 여행사)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vel, and a list of destinations like Jeju, Jeonnam, and Jeonbuk.